

Bangladesh

‘마지막 오지’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를 여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미지의 땅에 대한 호기심을 지속할 준비만 돼 있다면 낯설, 불편함, 혼돈은 진정한 여행의 기쁨을 주는 축복으로 변할지 모른다. 무엇보다 이방인을 활짝 웃으며 맞는 순박한 사람들이 있다. 도시의 길거리, 관광지, 어디서나, 만나는 사람마다 기념사진을 찍고 싶어 야단이다. 여행하는 외국인은 마치 BTS의 멤버라도 된 듯하다.

글 · 사진 성연재 기자



1

미지의 세계 그리고 마르코 폴로

마르코 폴로의 동방 여행은 서방 세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무더위와 사나운 맹수, 각종 질병의 매개체가 되는 벌레들, 서양인으로선 이해하기 어려운 동양의 풍습 등을 겪고 돌아와 동방견문록을 썼다. 반응은 뜨거웠다. 그것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었을까? 불안이었을까? 그로부터 700여년이 흐른 지금, 지구에서 여행자들이 찾지 않던 미지의 세계가 남아있다면, 아마도 가까운 아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 정도가 아닐까. 영국령이던 인도가 1947년 독립할 때 이슬람교도로 이뤄진 파키스탄이 분리 독립했다. 이후 벵골어를 쓰는 동파키스탄인들은 서파키스탄인들의 박해에 반발해 독립을 추진했고 1971년 12월 마침내 방글라데시를 건국했다. 방글라데시의 공식 인구는 현재 1억5천900만 명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최빈국 중 하나인 이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이곳 방글라데시를 처음 방문했을 때의 느낌은 마치 마르코 폴로가 된 듯한 것이었다. 어디를 가더라도 수많은 현지인의 환대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1 반갑게 손을 흔드는
현지인들
2 치타공 시내의 인력거

2





푸티아(Phutia) 지역 도로 버스 뒤
범퍼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엉망이다.

비포장도로와 배탈

외국을 여행할 때 가장 나쁜 시작은 새벽에 입국하는 것이다.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고스란히 여행의 첫날을 시작해야 한다. 모두가 잠든 새벽에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에 도착해 피곤한 몸으로 시작한 하루는 고단한 방글라데시 여행의 예고편

인 듯했다. 이튿날 다른 지역을 향해 다카를 떠나니 그제야 방글라데시에 온 것이 실감 나기 시작했다. 행상들과 우마차, 염소 떼와 아낙네들, 인력거들과 학생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길거리는 혼돈 그 자체였다. 다카에서 멀어질수록 환경은 더 나빠진다. 포장도

로라고 하지만 실상은 비포장보다 못한 곳이 적지 않다. 곳곳에 있는 포트홀이 크고 작은 충격으로 몸을 피곤하게 했고 당연히 이동 시간은 정상적인 포장도로의 서너배 이상 걸렸다. 길은 어느덧 비포장으로 바뀌어 있었고, 어떤 때에는 온종일 비포장 길을 달리기도 했다. 비포장도로를 벗어났다 싶으

면, 이번엔 큰 포트홀이 많은 포장도로가 이어진다. 상태가 좋지 않은 포장도로는 비포장길보다 더 나쁘다. 바닥을 ‘땅땅’ 때리는 충격이 그대로 몸으로 전해졌다. 차량 트렁크 안에 든 노트북 등 전자 제품들이 충격을 이길 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다. 다카 서북부 지역의 푸티아(Phutia) 부근에서는 버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의 행복지수가 전 세계 1위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과연 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행복이 주관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그런 눈빛과 미소를 얼굴에 담을 수 있는 건지. 방글라데시 여행에서 얻은 궁금증은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다.”



1 다카의 시장 '뉴 마켓'에서 닭을 판매하는 모습 2 다카 시내에서 산더미처럼 쌓아올린 플라스틱 통을 운반하는 노동자



가 춤을 추듯 달렸다. 도로 확장공사 중인 듯했는데 도로가 너무 막히니, 우리 일행이 탄 버스가 역주행을 시작했고, 맞은 편에서 오던 버스와 마주 서 꼼짝도 못 한 채 길에 갇혀 있기도 했다. 그것도 버스 뒤 범퍼가 땅바닥에 닿을 만큼 땅이 팬 곳에서 일어난 일이다. 상황이 이러니 예상 도착시각은 늘 빗나갔고 자연히 스케줄은 자꾸만 뒤쳐졌다.

또 한가지 여행자들을 괴롭힐 수 있는 것은 음식이다. 방심하면 쉽게 배탈이 날 수 있다. 끓이거나 튀긴 음식을 먹는 것이 안전하다. 화장실 환경도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물과 음식은 끓인 것만 선택했고, 되도록 음식은 많이 먹지 않았다. 그런데도 순간 방심하는 바람에 배탈이 나버렸다. 식은땀을 닦고 다시 식탁에 앉아 아닌 척하며 식사를 계속했다.





고기 잡는 아버지와 철모르는 딸

내륙 투어를 마치고는 다카에서 다시 동쪽 해안에 자리 잡은 도시 콕스바자르(Cox's Bazar)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탔을 때다. 프로펠러 비행기의 소리는 드라마틱하다. 출발 직전에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진다. 비행기 창문으로 끝도 없이 펼쳐진 해안선과 그곳에 늘어선 파라솔이 보였다. 세계에서 가장 긴 120km의 해변을 가진 곳이었다. 세계 3대 생선 수출국이라더니 공항에 내리자마자 생선 냄새가 코를 찌른다.

특이한 것은 비행기 수하물은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라 공항 바깥 노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직원들이 수하물을 출구 앞에 쏟아 놓으면 승객들이 알아서 자기 수하물 찾는 식이다. 수하물 분실 사고를 막기 위해 공항 직원이 수하물 태그와 가방을 일일이 비교하니 수하물 태그 챙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콕스바자르에서 차로 40분가량 걸리는 한 리조트에 여장을 풀 뒤 바로 선셋을 볼 수 있는 장소로 갔다. 한 해변에 내려 초승달 모양의 방글라데시 전통 목선인 문 보트(Moon Boat)를 살펴보고 있을 때였다. 한 젊은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그물질을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전통 어선 옆에 선 아버지와 딸은 마치 '고기 잡는 아버지와 철모르는 딸 있네'라는 번안 가요의 노랫말을 떠올리게 했다.

원래 노래인 '클레멘타인'(Clementine)의 아버지는 황금을 좇는 광부였지만, 번안 가요에서는 어부로 둔갑했다. 어쨌든 때마침 황금빛 석양을 배경으로 그물질하는 부녀의 모습은 딱 노랫가락의 주인공이었다. 경치에 감탄하고 있는데 부녀가 나를 향해 다가와 주저주저 손을 내민다. 돈을 요구하는 것 같았는데 그 모습이 강압적이지도 않고, 부탁하는 느낌이라 혼쾌히 100타카를 줬다. 주고 나서 가만 생각하니 1천400원쯤 되는 금액이다. 그들의 소박한 태도 때문인지 그리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곧이어 얇은 바닷물 속에서 전봇대 같은 말뚝을 어깨에 걸치고 휘청거리며 걸어오는 사람들이 보여 셔터를 눌렀다. 그들이 가까이 왔을 때 깜짝 놀랐다. 초등학교 정도밖에 안 되는 개구쟁이들이었기 때문이다. 어깨에 멘 말뚝은 고기잡이 그물을 고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무엇을 잡기 위해 그물을 쳤느냐고 손짓과 발짓을 동원해 물어봤더니 멀리보다도 더 작은 물고기를 보여준다. 그리고는 까르르 웃는다. 자기 키의 2배쯤 되는 큰 나무기둥을 옮기던 여자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수줍게 웃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 맘 깊은 곳에서 무언가 정화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해가 지고 난 뒤 식사하기로 한 약속 장소 '말뚝이뚜 리솔' 식당을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 가까스로 찾고 보니 인어를 뜻하는 '머메이드 리조트'(Mermaid Resort)의 현지 발음이었다.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된 리조트는 럭셔리했다. 참고삼아 1박 가격을 물어봤더니 3만5천타카(49만원 상당)가량이라 한다. 무거운 그물을 들고 환하게 웃던 여자아이의 얼굴이 자꾸 맘에 걸렸다.



1 반다르반 지역에서 만난 소수민족 소녀
2 파하르푸르의 한 노점상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그들, 방글라데시인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의 행복지수가 전 세계 1위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지금부터 20년 전인 1998년 영국 런던정경대(LSE)의 로버트 우스터 교수가 세계 54개국을 대상으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빈곤국으로 분류되는 방글라데시와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가 1, 2, 3위를 차지했다. 당시 조사에서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의 상위권에 들지 못했다. 이때부터 '방글라데시=행복지수 1위'라는 등식이 회자됐다.

과연 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방글라데시를 다녀온 뒤 행복지수의 반대 개념인 자살률을 알아봤다.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방글라데시 남성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5.5명이다. 같은 해 한국 남성의

자살률은 29.6명에 달했다. 행복지수뿐만 아니라 자살률 면에서도 방글라데시가 우리보다 낮다.

모든 면에서 방글라데시와 비교할 수 없이 깔끔한 한국의 거리로 돌아오니 무표정하거나 잔뜩 찌푸린 사람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온다. 그들의 메마른 얼굴을 마주하면서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순박하고 행복에 찬 미소가 떠올랐다. 불교유적지가 있는 파하르푸르에서 만난 한 노점상의 아이와 같은 눈빛, 고기잡이 나무기둥을 들고 걸어가던 여자아이의 수줍은 미소, 황금빛 석양을 등 뒤로 그물질하던 부녀의 행복한 얼굴. 행복이 주관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그런 눈빛과 미소를 얼굴에 담을 수 있는 건지. 방글라데시 여행에서 얻은 궁금증은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다.



Sundarbans

밀림은 살아있다 순다르반스

살아있는 자연을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다면 방글라데시의 순다르반스(Sundarbans)에서 밀림 투어를 해보자. 휴대전화 전파조차 잡히지 않는 밀림 속에서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태고의 자연을 만끽하며 완전한 해방감을 맛볼 수 있다.



밀림 한가운데서 만난 ‘수달 고기잡이’

정글 한가운데를 배를 타고 탐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행 인솔자에게 낚시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는 흔쾌히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했다. 그 말에 작은 기대를 안고 방글라데시 남서부 순다르반스 지역에 도착해 밀림 속 강을 향해할 페리(ferry)에 올랐다. 3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작은 페리였는데, 얼마 안 가 작은 고깃배가 작업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바로 수달을 활용한 어로 활동이었다. 훈련받은 수달이 물고기를 한쪽으로 몰면 어부들이 그물로 고기를 잡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준비해뒀던 낚시가 바로 이것이라고 여행 인솔자가 말해줬을 때 적잖이 실망했다. 이것은 직접 체험하는 게 아니라 어부의 고기잡이를 구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찬찬히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이는 실망감을 보상하고도 남는 진귀한 경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열른 작은 통통배를 타고 수달 고기잡이를 확인하러 나섰다. 어부 3명이 모는 10m 남짓 되는 작은 고깃배 옆에는 수달 두 마리가 헤엄치고 있었다. 수달은 능숙한 솜씨로 물고기를 몰았다. 주로 맹그로브 숲 아래 물속으로 들어가 물고기를 쫓았는데, 수달이 고기를 몰면 구릿빛 피부의 어부들이 힘찬 구호를 외치며 그물을 끌어 올린다. 그물이 올려질 때

열심히 고기잡이를 한 수달이 물고기를 먹고 있다.



1

1,2 물고기를 몰고 있는 수달 3 풀을 먹으러 온 사슴 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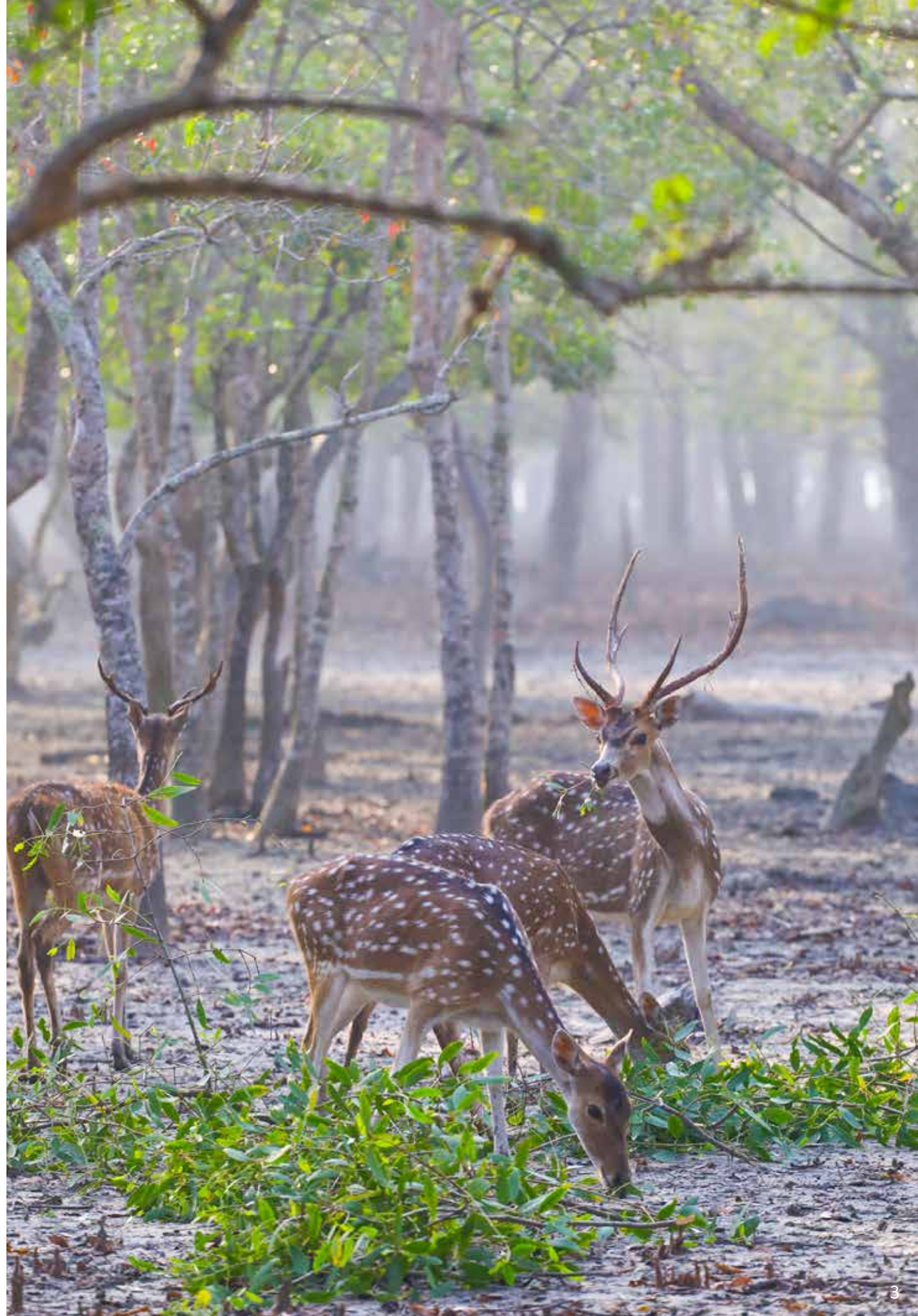
2

커다란 물고기 여러 마리가 떨어졌다. 여기 저기 오가며 자맥질을 해대는 수달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켜봤다. 물고기를 쫓는 데 성공한 수달에게는 물고기 몇 마리가 포상으로 주어졌다. 인간과 수달의 공생이었다. 이처럼 방글라데시의 수달을 활용한 어로 활동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며 BBC 등 몇몇 방송사에서 이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방송한 적이 있다고 한다.

순다르반스와 맹그로브 숲

이 지역이 순다르반스 국립공원이다. 순다르반스는 벵골 말로 '아름다운 숲'이란 뜻을

갖고 있다. 저기 멀리 인도로부터 흘러온 갠지스강과 브라마푸트라강, 메그나강 등이 방글라데시의 6번째로 큰 도시 쿨나(Khulna) 아래쪽을 흐르며 거대한 삼각주를 만들었다. 이곳에 자리 잡은 습지 밀림 지역이 바로 순다르반스다. 순다르반스는 1984년 국립공원으로, 198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됐다. 이곳이 유명한 것은 광대한 맹그로브 숲 덕분이다. 면적만 해도 인도와 방글라데시 지역을 합쳐 14만ha에 달한다. 여기에 모두 453종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보존정책에도 불구하고 공해 등으로 멸종되는 생물들의 숫자가





2



1 순다르반스 밀림 속으로 걸어들어가는 호랑이 가드 2 관광객들이 페리의 데크 위에서 망중한을 즐기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맹그로브란 열대와 아열대 지역 해안가에 자생하는 나무들의 총칭으로, 특별한 한가지 수종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맹그로브 숲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발생하면 거대한 맹그로브 숲이 그 파동을 70~90% 흡수한다고 한다. 뿌리를 밖으로 내놓고 호흡하며 약한 개흙(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 토양이 유실되는 것도 막아준다.

신선했던 ‘배 위에서 1박’

순다르반스는 참으로 독특한 경험을 안겨준다. 그중 하나가 선상에서 1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은 배 위에서 숙박한다는 게 처음엔 내키지 않았다. 페리로 이동할 때 30여 명이 작은 나룻배를 이용했는데, 안전성에 의구심이 생겼다. ‘큰 배가 옆으로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하는 불안감이다. 또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는다는데 연락이 두절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됐다. 그러나 나룻배는 20분 만에 안전하게 페리에 가 닿았다. 무엇보다 연락 두절 상태는 우려가 오히려 만족감으로 바뀌었다. 배를 타고 강을 내려가다 보니 어느새 모바일 신호가 끊어져 있었는데, 신호는 다음 날 그곳을 떠날 때까지 단 한 순간도 복구되지 않았다. 처음엔 카톡을 못 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얼마 안 가 마음이 편해졌다. 문명의 이기에서 한 걸음 벗어났을 때 느낄 수 있는 해방감이 찾아왔다. ‘아무도 날 찾지 못한다. 이 작은 기계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굳이 목적지를 살피느라 구글 지도를 볼 필요도 없다.’ 그냥 배가 가는 대로 몸을 맡겼다. 아무리 오지인 방글라데시라도 어디서든 특색하면서 터지는 SNS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내가 현대인임을 각인시키지만, 단 한 곳 예외가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순다르반스였다.

“이런 습지에 호랑이가 있다고?”

방글라데시 경험담을 늘어놓자면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순간이 있다. “맹그로브 숲에 호랑이가 있다고?” 그렇다. 질퍽한 습지인 맹그로브 지역에 호랑이들이 살고 있다. 이 호랑이가 우리가 말로만 듣던 벵골 호랑이다. 순다르반스 여행의 핵심은 다음 날 아침에 떠나는 호랑이 생태 투어다. 쉽게 말해 호랑이를 보러 떠나는 여행이다. 차량에 올라타거나 멀리서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여행이 아니다. 실탄을 장전한 소총을 맨 호랑이 가드의 보호를 받으며 맨몸으로 호랑이가 생활하는 서식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는 여정이다. 호랑이가 나올까 싶어 초긴장 상태로 숲속을 주시하며 발걸음을 땀다. 일행 중 한 명이 몇 발자국 떨어져 숲 내부를 둘러보는 순간 여행 가이드가 강하게 그룹으로 돌아올 것을 지시했다. “극히 위험한 지역이니 반드시 붙어서 견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제지를 당했던 사람은 “숲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그림자를 봤다”고 말했다. 선진국도 아닌 데다 외신 등에서 벵갈 호랑이에 희생당한 마을 주민들 기사를 심심찮게 읽었던 터라 긴장은 더했다. 이런 상태로 2시간 가까이 둘러보다 보니 나중에는 맥이 탁 풀렸다. 호랑이 가드가 마지막에 호랑이 새끼 발자국을 발견하고선 알려줬다. 얼마 되지 않은 듯 날카롭게 찍힌 발자국이였다.





1 호랑이 가드가 주변을 살피고 있다.
2 순다르반스의 일출



호랑이 출몰지역으로 가는 도중에 만난 것은 순한 사슴 떼였다. 관광 가이드가 맹그로브 나뭇가지를 조금 잘라 바닥에 깔아줬더니 사슴떼가 긴장하면서 다가왔다. 일본 나라현에서는 사슴들이 사람을 겁내지 않고 시내를 활보하지만, 호랑이가 사는 밀림 속 사슴 떼는 자그만 소리에 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저 멀리 달아났다. 정글이라는 게 실감 나는 순간이다. 방글라데시 다카 트리본에 따르면 지난해 순다르반스 지역에 사는 호랑이는 114마리

로 증가했다. 3년 전인 2015년 106마리였던 것과 비교하면 8%가량 증가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벵골호랑이 서식지 1천659km²에 카메라를 설치해 숫자를 파악하고 있다. 당국은 이 중 63마리가 성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호랑이 가드

밀림 호랑이 투어에는 호랑이 가드(Tiger Guard) 2명이 따라붙었다. 순다르반스에는 밀렵꾼을 감시하고, 호랑이

들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하는 무장 가드가 있다. 그중 젊은 편인 순다르 알리는 올해 신 살이다. 그는 현재 30년 가까이 호랑이 가드 일을 해오고 있다. 관광객의 안전을 책임진다. 드물게 호랑이가 관광객 근처까지 오는 경우가 있지만, 관광객을 해친 적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맹수 가운데 하나인 호랑이에 대한 경계는 절대 게을리할 수 없다. 소총을 어깨에 멘 그는 두 눈을 부릅뜨고 관광객들을 지켜다. 그가 소지했던

소총은 옛 소련의 세르게이 시모노프가 설계한 7.62mm 탄을 쓰는 SKS 소총으로, 분당 30발을 격발할 수 있다. M1보다 더 가벼워 호평을 받았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크게 얻은 AK-47의 원형이 됐다. 다행히 한 번도 쏜 일은 없었지만, 호랑이 가드 알리는 실탄을 넣은 호주머니를 차고 있었다.



Bagerhat

신비로움 간직한 미지의 유적들

방글라데시는 열악한 인프라 때문에 그간 관광객들의 관심에서 비껴나 있었지만, 사실 서방 세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유적지가 곳곳에 널려 있다. 특히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유적들이 여행객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1, 3 하늘에서 본 60돔
2 60돔 내부
4 소총을 맨 여경



오스만튀르크의 그림자...바게르하트의 '60돔'

이슬람교가 국교인 방글라데시는 국민 89%가 무슬림이다. 당연히 많은 이슬람 유적을 볼 수 있다. 이중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15세기 터키의 장군 칸 자한이 남부 지역에 세운 고대 도시 바게르하트(Bagerhat)의 모스크다. 갠지스강과 브라마푸트라강이 만나는 순다르반스 지역의 위쪽에는 오스만튀르크 제국의 영향력이 미쳤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건물이 바로 '60돔'(Sixty Dome)이다. 실제 이 건물을 하늘에서 바라보면 돔 숫자는 총 77개이고, 돔 아래를 지탱하는 기둥이 60개인데, 건물의 이름은 60돔이 됐다. 돔으로 장식된 바깥 모습과는 달리 내부는 의외로 화려하지 않다. 주변의

이슬람 신자들이 한두 명씩 찾아 기도를 드릴 뿐 고요하기 이를 데 없다. 모스크를 나오다 경찰복 차림의 여경 2명과 만났다. 놀랍게도 소총을 매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슬람권 국가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그리 높지 않은 경향이 있지만, 방글라데시는 예외다. 곳곳에서 군인과 경찰복을 입고 근무하는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8년 성(性)격차지수에서 방글라데시가 아시아에서 필리핀에 이어 2위에 랭크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수궁이 갔다.



1

1 풀밭이 된 파하르푸르 2 강아지가 평화롭게 엎드려 있다.
3 파하르푸르를 찾은 현지 여성 4 성벽만 남은 마하스탄가르



2



3

‘방글라데시의 만리장성’ 마하스탄가르

바게르하트에서 북쪽으로 가면 방글라데시의 오랜 역사를 보여주는 고대 도시들을 만날 수 있다. BC 3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마하스탄가르(Mahasthangarh)가 대표적이다. 버스를 타고 도시에 가까이 가면 일단 차창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길고 긴 성벽이 찬란했던 고대 도시의 옛 영화를 자랑한다. 창밖엔 쌀이 재배되고 있는 논 위로 붉은 벽돌 성벽이 줄지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마치 중국의 만리장성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수도 다카에서 서북쪽으로 230km 거리에 있는 마하스탄가르는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다. 카라토야강 서쪽으로 길게 뻗은 지역에 세워진 이 도시는 BC 320년경 찬드라굽타가 세운 마우리아왕조의 인도 북동부지역 거점 도시였다. 남북으로 1천525m, 동서로 1천370m의 규모다. 약 5m 높이의 붉은 벽돌로 된 성벽이 쓸

쓸히 서 있다. 성벽 위에 올라서니 내부는 텅 비어있다. 화려했던 도시의 건물들은 정확히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 길이 없고, 오로지 남은 건 성벽뿐이다. 성 주변엔 가끔 몇몇 커플들이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마하스탄가르의 성벽 바깥쪽으로는 작은 힌두 사원 유적이 있다. 이 사원은 1928년과 1960년에 한 번씩 발굴이 이뤄졌고, 그 결과 동서쪽에 사원이 하나씩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쪽 사원은 6세기경 건축된 것으로, 동쪽 사원은 11세기경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는 주조된 동전이 발견되기도 했다.





한없이 평화로운 불교유적지 파하르푸르

마하스탄가르를 떠난 차량은 서북쪽의 파하르푸르(Paharpur) 지역으로 향했다. 파하르푸르에는 방글라데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불교유적지 가운데 하나인 소마푸라 마하비하라(Somapura Mahavihara)가 있다.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국가지만, 다른 종교에 대해 포용적이어서 종교적 긴장감은 거의 없다. ‘위대한 수도원’을 뜻하는 이곳의 첫인상은 한없이 평화로웠다. 아직 사람들의 발걸음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일까? 입구에는 제대로 된 상점조차 없다. 몇몇 행상들이 앉아 음식이 팔리기를 기다렸지만, 대도시처럼 악착스럽지 않다. 그저 ‘사주면 고맙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느낌으로 한가롭게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대승불교(Mahayana Buddhism)의 영향권에 있던 이곳은 인도와 방글라데시에 있던 5개의 승려 교육 기관 가운데 한 곳으로, 불교 진흥기인 8세기 인도 팔라 왕조 시절에 세워졌다. 12세기까지 전 세계 승려들이 이곳에 와서 수행하는 등 불교의 중심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지만, 서구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 사찰 유적은 높이 24m, 면적 8만5천㎡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지만, 현재는 가운데를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이 붉은 벽돌 기초만 남아 있다. 중앙탑에는 사각 구조 사원이 있고

1, 2 하늘에서 바라본 파하르푸르



177개의 승원이 주변에 산재해 있다. 그 규모를 알기에는 지상의 눈높이 만으론 부족했다. 드론을 띄워 보니 질서정연한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드론은 이런 곳들을 관찰하기에는 제격이다. 사람 눈높이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정사각형으로 기획된 이 유적지는 방글라데시 지역에 거대한 종교 문화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붉은 벽돌의 건물 잔해를 배경으로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초원의 모습은 무한한 평화를 가져다준다. 이런 느낌은 거대한 나무 그늘에 하릴없이 누워 잠을 자는 개들에서도 느껴졌다. 어쩌면 저 개들이 부처일지도 모른다. 한없이 평화로움이 느껴지는 곳. 파하르푸르는 그런 곳이다.

시바 여신을 모시는 푸티아

운 좋게도 푸티아로 향하는 도로는 포장의 질이 꽤 좋았다. 포트홀도 많지 않아서 일행을 태운 차량이 속도를 낼 수 있었다. 포장된 도로를 달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고맙게 느껴졌다. 그러나 푸티아(Phutia)에 가까이 갈수록 도로 사정이 나빠졌다. 가까스로 도착한 푸티아는 그 고생을 보상해줄 만큼 아름다웠다. 푸티아는 19세기에 만들어진, 거대한 해자에 둘러싸인 힌두 유적 도시다. 해자는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이곳의 해자는 거의 저수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큰 규모다. 공중에서 보면 가로세로 500m는 족히 되는 크기의 저수지가 도시를 감싼 형국이다.

그 도시 한가운데 가로 100m, 세로 150m가량의 작은 저수지가 또 자리를 잡고 있다. 그 초입에 시바 여신을 모시는 사원이 있다. 하얀 탑으로 이뤄진 사원에서 저수지가 내려다보인다. 그 저수지 한켠에 왕이 머물던 라즈바리 궁전이 보인다. 해자로 둘러싸인 이같은 지형은 처음 걸어서 이곳을 둘러볼 때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다. 나중에 구글 지도를 보고 나서야 알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규모였다. ▼



푸티아의 시바신전



여행정보

항공편
인천에서 방글라데시 다카를 잇는 직항편은 없다. 홍콩이나 타이베이, 광저우, 방콕, 싱가포르 등지를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 남방항공 이용 시, 인천에서 광저우까지 3시간 30분, 광저우에서 다카까지는 4시간이 걸린다. 어떤 항공편이라도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면 최소 10시간은 잡아야 한다.

환율, 물가, 봉사료
화폐 단위는 타카(TAKA), 10타카는 140원가량이다. 여행 중에 산 생수 500ml의 가격은 200원 정도다. 서구의 팁 문화는 없지만, 일종의 급행료는 일상적으로 통용된다.

시내 교통
인력거인 릭사도 많이 이용되지만, 오토바이를 개조해 사람들을 태우는 'CNG'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압축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를 쓰기 때문에 얻은 이름이다. 기본 100타카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나 흥정을 해야 한다. 5명을 채워야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차, 날씨, 여행 복장
시차는 한국보다 3시간 늦다. 여행에 가장 좋은 시기는 12~2월 사이다. 이때 평균 최고 기온이 20도 내외로 선선하며, 모기 등 해충도 없다. 비도 내리지 않는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느낌이 들 수도 있으므로 긴 옷과 가벼운 기능성 외투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전압
전압은 220V로 한국에서 사용하던 전기제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콘센트 형태가 달라 어댑터가 필요하다. 콘센트 형태는 천차만별인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영국 표준인 'TYPE G' 형태다.



기타 명소

랄바그 요새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도 숨은 명소들이 많다. 인도 무굴제국이 1678년에 세운 랄바그 요새(Lalbagh Fort)도 그 가운데 하나다. 영국이 세운 동인도 회사의 폭력적인 식민 지배에 대해 인도 전역에서 일어난 '세포이의 반란' 때 이곳에서는 260명의 세포이(인도의 용병)들이 숨졌다. 원래 이름은 요새를 건설한 가문의 이름을 딴 '아우랑제드'였다. 세포이의 반란 때 흘린 피를 상징해 '붉은 정원의 성'이란 뜻의 랄바그 요새로 이름이 바뀌었다. 요새 안에 비밀통로와 이슬람 사원, 목욕탕 등 다양한 시설이 있다.



탕가일 전통 직조마을
다카에서 북서쪽으로 2~3시간 가면 만날 수 있는 탕가일(Tangail) 마을에서는 예전 방식 그대로 옷감을 짤다. 금속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기원전 4세기부터 내려오는 대나무 등으로 만든 전통 베틀을 사용한다. 이곳에서는 방글라데시의 여성 전통 의상인 'jamdani'(Jamdani)를 생산한다. 옷감을 짜는 모습을 관람할 수 있으며, 시종보다 저렴하게 살 수도 있다. 이곳에서는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는 삶을 사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생활상도 엿볼 수 있다.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음식

방글라데시 음식은 과거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아 아찔할 만큼 맵고 강한 향신료 맛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어딜 가든 만날 수 있는 볶음밥 비리야니(Biryani)는 한국인 입맛에 대체로 맞다. 한국에서 먹는 쫄쫄득득한 느낌의 쌀밥은 아니고 주로 안남미에 켜 고기나 생선 등을 넣고 볶아낸다. 볶음밥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생선요리도 빼놓을 수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힐사(Hilsa) 또는 일리쉬(Ilish)라고 불리는 생선인데, 먹을 때는 항상 가시에 신경을 써야 한다. 방글라데시에선 미스티 도이(Mishti Doi)라고 부르는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 미스티 도이는 우유와 재거리(Jaggery)라는 천연 사탕수수로만 만든다. 재거리는 사탕수수과 야자나무의 수액을 증류해서 만든 정제하지 않은 설탕 덩어리다. 달짝지근하면서도 상큼한 요구르트 맛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요구르트라기보다는 쌀과 크림치즈 맛이 나는 치즈 케이크에 가깝다. 물은 상수도 시설이 미흡한 방글라데시의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기 곤란하므로 병에 든 물을 사 마시는 것이 좋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Mum 등이 무난하다.



호텔



수도 다카에 국제 기준에 부족함이 없는 인터컨티넨탈 다카 호텔이 있다. 객실은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구조가 객실마다 다소 다르다. 다카 중심에 자리 잡은 이 호텔에서는 국제적인 행사가 많이 열린다. 레스토랑과 커피숍, 카페 등을 갖추고 있으며, 1층의 오픈스 라운지(Opus Lounge)는 오전 1시까지 영업한다. 2층에는 야외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 등도 있다.